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마르 10, 35-45)

본각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새 회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관련기사 본보 1278호 '본각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출마').

본각 스님은 지난 1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 관 법륜사에서 진행된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서 육문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회장 선거에서 육문 스님은 '안정' 과 '경험' 을, 본각 스님은 '변화' 와 '소통' 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본각 스님은 당선 직후 "우리 모두는 한 방울의 방울물이어서 한 곳으로 흘러가 모두 모일 것" 이라며 전국비구니회의 '화합' 을 천명하고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진리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다짐했다.

본각 스님은 또 "평생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모두를 모시고 함께 가겠다" 고 강조했다.

새 총인에 경정 정사 대한불교진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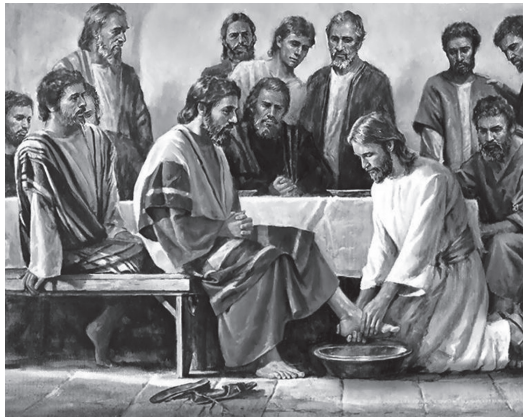
대한불교진각종의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가 추대됐다. 총인은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는 최고 권위를 갖는 직책이다. 경정 정사의 임기는 지난 8월 1일부터 5년이다.

온화한 성품의 경정 정사는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끌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다.

진각종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스승강공 기간에 법통승수식과 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 중 하나다. '일상 속 실천적 불교' 라는 목표에 따라 출가승이 아닌 결혼을 하는 재가승 제도를 갖고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과 권세욕이 강하게 발동한다고 합니다. 즉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남을 부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남 앞에 으스스대며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곧장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할까요?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봉사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며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살

어느 단체에서나 보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조그마한 직책이라도, 아니면 최소한 하찮은 명예직이라도 하나 가져야만 흐뭇해하고, 남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타나곤 합니다. 조그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허울 좋게 백성의 은인으로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남으로부터 섬김만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위대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솝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수레바퀴들이 삐걱삐걱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러자 소들은 수레바퀴 쪽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삐걱거리는 소리를 가만 멈췄으면 좋겠어! 무거운 짐은 내가 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는지 알 수 없구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공연히 제가 피로하고 땀 흘리는 체하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둔하고 말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사람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잘난 체하며, 수고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런 자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위대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러름을 받기만 하므로 자신이 높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비뚤어진 것이며, 역사의 심판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과 피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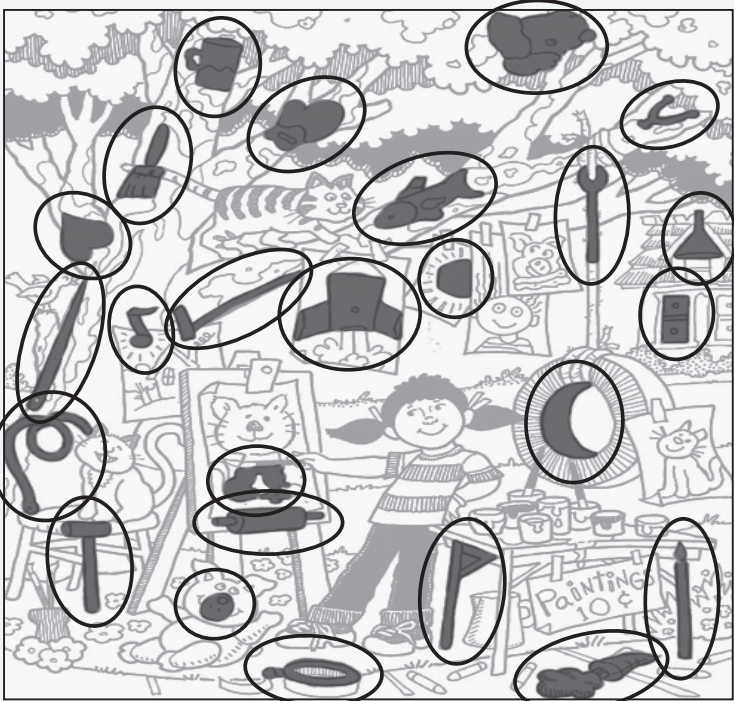
그리고 그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봉사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하며 간청하기 전에 불쌍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기까지 봉사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높은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르 10, 44-45)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표준관 신부-

숨은그림찾기 정답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